

보도시점 2025. 5. 23.(금) 16:00 배포 2025. 5. 23.(금) 10:00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및 정책 실행력 강화 위한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회 개최

- 기재부 주관, 수은 등 10개 기관 참여
- 기업 애로 발굴, '통합지원데스크' 설치, 연계금융 등을 통해 공급망 지원 활성화

기획재정부는 2025년 5월 23일(금) 공급망 분야의 정책 대응 능력 제고 및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회는 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최근 공급망 이슈는 복합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 단일기관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다양한 정책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하게 협업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기능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협의회 참여기관은 기업과의 접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회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 내에 '공급망 통합지원 데스크'를 설치하여 정책 수요기업들이 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기관들은 기관 간 연계금융을 통해 충분하고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대규모 사업으로 단일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 간 공동대출을 추진하고, 리스크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공급망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핵심광물 분야 등 대해서는 공동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여신한도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보증 및 보험을 적극 연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체는 향후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44-215-7880)
		담당자	사무관	정현경 (gusrud5511@korea.kr)

